

1.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데, 기도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마태복음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마 6:8).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 곧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이미 아시는 분임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해져 있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라는 질문 말이죠.

이러한 질문은 기도를 단순히 필요를 전달하거나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때 발생합니다. 만약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거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도구라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불필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그 이상의 존재론적이고 관계적인 행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알지만, 자녀가 직접 와서 이야기할 때 관계 안에 더 깊은 사랑과 신뢰가 형성되듯, 하나님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관계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그 반대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과의 협상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와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은 기도의 초점을 ‘무엇을 얻는가’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가’로 전환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내면의 정화이자 성숙의 여정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행위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전환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단순한 ‘도움 제공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 6:6)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닫는다’는 행위는 외적인 모든 가면과 역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나의 사회적 지위, 업적, 실패, 신앙인의 타이틀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나, 이 두 존재만이 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기도는 내면을 성찰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자리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빚어져 갑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종교적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나아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 자신이 변화되는 신앙적 만남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보다,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가느냐에 집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 \_\_\_\_\_
-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기도는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경험이 있나요?  
→ \_\_\_\_\_
- 최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신 경험이 있나요?

→ \_\_\_\_\_

-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골방의 기도'는 어떤 공간이나 시간인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 \_\_\_\_\_

- 글에서 말하듯,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요즘 내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영역은 무엇인가요? 그 부분을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께 말길 수 있을까요?

→ \_\_\_\_\_

-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예: 감사기도, 묵상, 침묵기도 등)을 실천해볼 수 있을까요?

→ \_\_\_\_\_

###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제가 구하기도 전에 제 마음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가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종종 제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기도가 제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제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제 마음이 닮아가게 하시고, 저의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저의 삶이 힘들고 복잡할수록 더 깊은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나의 가면과 역할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필요와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제 존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